

# 한글

여쭙는 말입니다

편집 내용 변경에 대하여

號一第卷二第  
【號月四】  
1934

一 部 一  
錢五 金 月 個 六  
錢十三 金 年 個 一  
錢五十五 金

所行發  
九二一洞花府城京  
部版出會學語鮮朝  
番六三〇一城京督振

「한글」은 지금부터 내용 전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원래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편집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한글에 관한 여러가지의 학구적(學究的) 연구를 발표하는 학보(學報)가 되었던 것이지만, 우리의 말과 글을 과학적(科學的)으로 연구하여 바른 체계(體系)를 세우는 것이 몇몇한 일이었으므로, 지금까지에 이 「한글」에 실린 글은 주장으로 과학을 의거한 모든 학설(學說)과 이론(理論)으로 된 연구 논문을 발표함에 그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리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도움이 크리라 하겠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별로 실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우리글을 어떻게 쓰야 하나, 곧 지금까지 혼란하게 쓰던 우리글의 맞춤법(綴字法)을 하루바삐 통일하자함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세를 살피고 여러가지로 생각한 결과, 「한글」의 종래의 편집 방법을 바꾸어, 될수있는대까지 통속을 주장하여, 누구라도 한글을 자유로 학습하며 실제 응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힘써서, 일반 대중의 요구에 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값있는 연구 논문은 따로이 특집으로 하여 특히 이것을 요구하는이에게만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한글」을 시작할 때의 처음 정선에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간단히 「한글」의 편집 방법을 변경함에 대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 「이것」이나 「이거」

진-금-동-의  
요새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말된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꾸며서 본디 바르게 된 말을 일러 버리게 하고 첫서 하는 못된 버릇들이 가끔 있다。 웅변회(雄辯會)같은대서 변사들의 하는 말소리를 들든지, 후극장(劇場)같은대서 영화해설자들의 하는 말소리를 들든지 하면, 그 말의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흔히 본다。 그중에도 더욱 구역질이 나도록 들기 싫은 것은 「이것은」 할 것을 「이거」라 하며, 「그러한거다」라 하는 따위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원고를 가지고 자꾸 읽고 읽어 그대로 외어서 말하기 때문이다。

어찌 그뿐이랴。 요새 소위 유식하다는 측에서도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이것」을 「이거」, 「이것은」을 「이거」, 「이것에」를 「이거에」, 「이것을」을 「이것들」로 읽는다。 마땅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로

발음하여 읽을 것이다。

누구라도 「사」와 「다」를 같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와 「달」 때에는 「스」 소리를 아랫으로 발음 되게 하고, 「다」 발음이 「달」 때에는 「드」 소리를 아랫으로 보내어 그 아래에 있는 글자에 「다」 발음 되게 하는 것이다。 비단 「사」와 「달」이 아니라, 어떠한 글자를 물론하고 다 그러한 것이다。 예를 들면 「먹이」를 「머기」로 「돈이」를 「도나」로 「물이」를 「무리」로 「같이」를 「가미」로 「밤이」를 「바비」로 발음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도 「이거시」로 발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글 쓸 때에는 물론 「이것이」 「그러한것이다」로 할 것이요, 말할 때에는 「이거」 「이거」 「이거」로 음하여야 한다。

### 次 目

- 편집 내용 변경에 대하여.....(1)
- 「이것이냐」 「이거냐」.....(1)
- 한글의 통일과 보급에 대한 차례 여러분의 말씀.....(2)
- 한글 바꾸잡아 쓰기 익힘.....(4)
- 譯名을 俗音으로 고쳐서라.....(6)
- 재미있는 시골 사투리.....(7)
- 〔劇本〕 배방이웃.....(8)
- 새글 청구영언.....(8)

###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 卷一 指導例.....沈宜麟.....(10)
- 새받침 글자 연습.....(11)
- 조선말본 장의(제1장) 崔鉉培.....(12)
- 물음과 대답.....(14)
- 부질없는 수작.....(14)
- 옛말 찾기.....(15)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한글학회 창간 10주년 기념 특집

한 글 의 통 일 과 보 금

강습회 개최와 인쇄물 교정으로

天道教會 大道正 崔 麟

말과 글은 한 민족의 서로 뜻을 통하는 공동 약속인 것만큼, 그 통일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제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니 그것은 우리 조선사람 친척로 보아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말하면 세상이 다 아나바와 같이 한글 학계의 권위자들의 모여서 오랜 세월이 많은 시간을 희생하여 이른 안(案)이니, 조선 민족은 하루바빠 그대로 좃아 실행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보급시키는 방법인 연래의 조선어학회에서 하여오던바와 같이 여를 방학 기간이나 또 틈 나는 대로 정향 각지에 한글 강습회를 많이 여는 것과 또 무슨 인쇄물이든지 조선말로 된 것이면 다 새 철자법대로 고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의 될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회에서는 이 통일안 실행에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양으로 가득한 한글 강습회를 열게 되며, 지식의 미치지 못하거나 후 인쇄소의 활자 준비의 불충분으로 말미암아 후 안전하지 못한 곳도 없지 않나 하겠으나, 우리의 태도만은 칭하여진 것만큼, 그 실행에는 편애를 쓰고 있습니다.

간이 한글본본을 배부하라

天道教會 支機觀長 李 鍾 麟

조선말 통일 기관인 조선어학회에서 여러 해 동안 노력하여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

안은 우리 문화사상에 한 새 기록을 지은 것입니다. 여태까지 글을 함부로 썼으면 우리들은 이제야 새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 보급책으로 말하면, 위선 중앙기관에서 간의 한글독본(簡易한글讀本)을 인쇄하여 각 문화기관에 실비로 팔고, 그 기관에서 자기에게 관계된 민중에게 복음(福音)과 같이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천도교회에서는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문과 기관 잡지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수회와 한글의 가치를 발전한 자이다

耶穌教監理 教會總理師 梁 柱 三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끼쳐주신 우리 조선 민족의 영구히 가질 큰 보물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보물을 진흙 속에 묻어두고 다스리는 것이 없었더니, 조선어학회에서 다수한 시간을 희생하여 이마적 맞춤법 통일안을 칭하여, 이에 비로소 이 보물의 진가(眞價)를 발휘하게 되었으니, 크게 경하할 바입니다. 나는 그 안(案)에 대하여 다소 의아한 점도 없지 아니하나, 여러분 학자들이 거의 침식을 잊고 노심초사하여 맨들어 놓은 것인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철대로 인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속히 우리 사회에 보급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위선 주장으로 이를 선전할 잡지를 발행하는 것이 일대 경로(徑路)로 압니다. 우리 예수회에서는 일주부터 한글의 가치(價値)를 발전한 자라 할 터인데, 지금에도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운동의 찬성할 필

요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허다한 출판물을 다 이 통일안을 좃으며, 모든 기록까지도 일체 한글 철자법대로 하자고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읽는 성경(聖經)도 불구의 그 통일안대로 고쳐야 될 줄 압니다.

수십만 아동에게 교재로 쓴다

耶穌教長老教會牧師 咸 台 永

우리 예수회에서는 벌써 오륙십년전부터 성경(聖經)을 순조선말로 번역하여 썼으며, 천도(天道)에 관한 많은 간행물도 모두 순조선말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궁촌벽협(宮村僻嶺)의 부녀 소아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날부터 다 우리 말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보면 예수회가 조선 문화에 공헌(貢獻)이 적다고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쓴 철자법을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알아왔지만, 오늘날 신문에서나 잡지에서나 각종 서적에서나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또 학교에서도 모두 신철자법대로 가르치니, 성경에 쓴 철자법도 자연 폐기(廢棄)되고 말 것입니다. 장차는 성경도 신철자법으로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또 조선어학회에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통일안을 만들어 발표한 것이 있으니, 우리 조선 천민족은 물론 그것으로써 통일하여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회에서는 주일학교(主日學校)와 하기아동성경학교(夏期兒童聖經學校)에서 친조선 수십만 아동에게 다 한글을 교재(教材)로 하여 가르치니, 한글 보급에는 이에서 더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각 계 여 리 분 의 말 승

[재

말이 하나인바에 글도 하길로 써야 한다

카톨릭교회主教 元亨根

나는 외국 사람이지만, 조선에 온지 이십 년이 넘었을뿐 아니라, 앞으로 오래도록 이 땅에 있겠으니까, 조선어에 대하여는 조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조선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는 다른 기관보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어의 철자법이 불통일한 것을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야 통일될 줄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하겠느냐고? 그야 조선어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에 있을 줄 압니다.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말이 하나인바에 글도 한길로 써야 할 줄 압니다. 나는 때때로 여러 조선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아볼 때 철자가 불통일하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할 때가 많습시다. 우리 교회에서 경영하는 「카톨릭청년」과 그 밖의 출판하는 서적이 많이 있으니, 조선 사회에서 철자법에 대한 동향(動向)을 보아 우리도 따라 쓰고자 합니다.

교과서로 언론기관이로 문필가로 강습회로

佛敎界 韓龍雲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케야 세상에 나오게 되니 너무나 늦었습니다. 한글 학자들이 모여서 다년간 과학적 노력을 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안(案)이니, 우리 민중은 그대로 좃을 것 밖에야 다름 것이 없습니다. 그안의 보급 방법은 첫째 교과서(敎科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언론기관과 일반 문필가들이 힘써 행하여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는 한글 강습회를 많이 열어서 대중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 기관에서는 이번엔 나온 새 철자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가치 실행하자

東亞日報社長 宋鎮禹

한 민족 문화의 발달은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보수(報酬)가 없는 학자의 노력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낸 것은 조선, 아니 인류 문화사상에 새로운 기록을 이룬 것인 줄 압니다.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사계 권위자의 희생적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만큼, 그 가치는 더욱 큼니다. 이 안(案)을 우리 민족이 다 가치 실행하여야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발대(先發隊)로 문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것을 먼저 행하는 데에 가장 용감한 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대 우리의 동아일보사에서는 한글 강습회를 주최도 하고, 후 후원도 하여 민중에게 한글 새 철자법을 많이 보급하기도 하며, 신문에 이 통일안이 나오자 곧 행하고 있습니다.

평이화하게 하여 가르치라

朝鮮日報社長 方應謨

우리들의 생김 이후 한번도 청리되지 못하여 혼란하기 막심하던 것을 조선어 학회의 여러 학자들이 수십년 동안 많은 노력을 쌓아서 오늘날 비로소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내고, 또 이를 보급하기에 진력하시니, 그 공로는 어떻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글을 통일하자면 먼저 여러 학자들부터 통일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자기 자기의 주장하는 바 학설을 세우기에 몹시 굳세게 나아가는 일도 있지만, 다수 의견에 합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또 이것을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되도록 우리 글을 평이화(平易化)하게 하여 일반 민중에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통일안이 매우 적의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선일보에는 글 쓰는 이들중에 아직 이것에 의지 못한 이도 있으므로, 지금은 한 지면에도 불통일을 면하지 못하나, 장차 활자(活字) 전부를 개정하기로 하니, 그때에는 일신개량하여, 전 지면이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형식까지 하였으면

朝鮮中央日報社長 呂運亨

나는 문외인이라, 한글 철자법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생각으로는 이케 새 철자법보다 더 나아가서 횡서철(橫書綴)까지 하였으면 더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보급시킬 방법은 될 수 있는 대로 한 오천짜리로 한글의 관한 강이나 잡지같은 것을 박아서 널리 퍼뜨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일부는 통일안에 정한 대로 쓰기도 하지만, 당분간 글 쓰는 사람의 각자의 의견에 맡기어서 신철자법이나 구철자법이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어떻게든지 전 지면을 통일하여야 될 줄 압니다.

# 한글 바루 쓰기 힘익



6818075

전 소설 (쇼설)

이 지음

그런대로 쓰는것의 잘못을 바루잡아 쓰기를 익히는것이 우리글을 통일하는데에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 난을 두는것이다. 이것을 읽을 때에 그 결에 바  
루잡아 쓴것을 깊이 주의하여 보기를 바란다.

있었는데, 재산도 민고 노복들도  
이 잇었는데, 재산도 민고 노복들도  
만히 두었소. 노복들도 상년의 간절  
히 구는데 열복하여 항상  
『세상에 우리 상년것히 착한 사람  
은 다시난 업슬러야. 먹을것이고 입  
을것이고 잘 마암취 해주고, 또 우  
리들을 한번도 몹시 부린 일도 업  
어 참말 한량업시 어진 사람이지:  
...우리들은 었지만 세음인지, 상년으  
로 생각할수가 업서...: 다른데 상년  
을 보즉, 종을 개도야지보담도 더 몹  
시 부리난대, 우리 맥 상년은 참말  
간절하게 해주쳐...:우리들은 죽어도  
실음 업서...:』  
하야 상년을 높혔소.

이 일을 마귀 한마리가 알고, 상  
년과 노복들이 이리케 화복하게 지  
내난것을 미워하여 이 사이를 성기  
게 하리라 하여, 여리가지로 생각한  
뒤에, 노복중 한놈을 내 손에 넣는  
것이 데일 상책이라 하고, 그중에서  
아레브란 종을 식혀서 다른 종을 다  
변심케 하려하였소.  
어니는 종들이 일을 맞치고 쉬  
난참에 아레브가 소태를 높혀 여  
들이 다 드르란드시 이리케 말하였  
소.  
『우리맥 상년하고 바루 세상에 다  
시난 더 착한 사람이 업난것처럼 아  
는 못난것도 잇더라. 별소태 다  
겠지. 마귀라도 그 하라난대로만 꼭  
꼭 하면 우리들의게 잘 굴러이지.  
우리 주인이 지금은 무엇을 바라거  
니 하고, 우리들이 미리 아라차리고  
그대로 하여주니깐 간절하게 구난것

이니, 무엇 이상할것 잇나. 그러니깐  
우리가 못된 짓을 하면 아모리 우  
리의게 주인이라도 노할러이지...:아  
모라도 악에는 악으로 갚고 원에는  
원으로 갚으니깐』  
다른 노복들이 아레브의 이 말을  
들고 다 그러치 안라고 반대하니,  
그러면 피차간 누가 옳은가 내기하  
여보자 하고 이리하게 되얏소.  
그래서 아레브가 상년을 노하게 할  
피를 내게 되얏난대, 내가 지면 내  
출입옷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지  
면 너희들이 다 각기 출입옷을 내  
게 내라고 약정하였소.  
『또 그뿐 아니라, 아레브가 만일 자  
기의 죄가 드러났거든, 이 뒤에 상  
년의게 숙지람 당할 때에 업혀서 역  
성드려 주어야 하겠지. 하야, 이 일  
까지 여러시 다 허낙하고로, 드디어  
태일 아참에 상년을 한번 상나게 하

겻다 하였소.  
아레브난 이 집의 양 치난 종으  
로, 상년의 가장 사랑한 양을 맛  
아가졌소. 그 잇흔날은 일이 다 되  
나라고 상년이 손을 청하여다가, 이  
양을 보일러이니, 그리 말나고 아레  
브에게 명하니, 이를 들고 아레브난  
아가리를 딱 버리고 조와하였소.  
이튼날 아참이 되야 손이 온고로,  
상년은 항상 자랑하던 양을 보일차  
로 우리 이팔이 왔소.  
이를 보고 아레브가 눈으로 동료  
들의게 군오를 하면서,  
『자, 지금 내가 주인을 상나게 할  
러이니, 너희들 꼭 보아라』  
하난드시 고개짓을 하였소.  
다른 노복들은 이를 보고 다 놀  
나와서 썰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고, 마귀도 아레브가 었지 하난것을  
살필차로 그 업혀 잇난 나무 위에  
올라 앉았소.  
상년이 손을 인도하면서,  
『이 양은 내가 매우 자랑하난것이

하고, 그중에서 한마리를 가른치면서  
『피옥』이 높은 자공한중에도 특별하  
게 자공한남들이요』  
하더니, 이 새에 었지한 세음인지 울  
리 속에 있던 양이 문으로서 우다  
특락 특 튀어나오니, 이를 보고 주  
인도 놀라고 재도 놀랐소. 이 새에  
아레브는 울라구나하고 그 양을 붓  
들었  
드렸소.  
상견 또 묘에서 큰 소래로,  
장년도 또한 었해쳐  
『아레브야, 그 양을 얼는 붓드러라.  
그 설을 단단히... 얼어바리지 안도  
록 하아라』  
하였더니, 말이 미치 마 맞치지도 아니  
하야서, 아레브가 맛치 사자가 양무  
리 속에 들어가는 셈으로 소란하게  
들었  
붓드렸소. — 한 손으로 그 털을 쥐  
고, 한 손으로 그 다리를 놀렸소.  
이시슴에 아레브가 일부러 양의 다  
리를 분질냈소. 이를 보고 손과 종들  
은 잠적 놀나서 무엇이냐고 소래를  
질드고 마귀난 잘도 하얏다 하난듯  
한 얼골도 나무 우해서 빙글빙글  
섯소.

상견 그 고개를 숙이고 불쏘려  
미 보면서 아모 말도 아니하얏소.  
얼마있다가, 그 상견의 눈을 들고  
하날을 우러리보다가, 눈을 나리얏으면  
서 아레브를 보고 표흔 낫츠로 우  
스면서,  
『아레브야, 네가 필면 나를 칭내게

**신문 기사와 교정**

**환희의 봄·성공의 봄**

젊은 학생들의 기쁨과 슬픔을 한  
목으로 실고 오는 삼월은 닥쳐왔다.  
봄질의 양식을 거두는 철이 가을이  
라고 할것가드면, (칭신의 양식을 거  
두는 철은 봄이 될것이다. 사오년동안  
쌓아둔 신고의 금자탑(金字塔)은 이  
봄을 맞이하여 케막(除幕)을 하게 될  
때에, 젊은 가슴에 뛰는 환희(歡喜)  
의 물결! 이는 인생을 통하여 기  
련할 순간이 될것이다 — 삼월은 경  
성부내에서 공립제일고보, 보성, 휘문,  
배재, 양정의 다섯 고등보통학교를  
위시하여, 전신, 협성실업, 기독교년회  
학교의 합 여들 중등학교가 금년도  
졸업식의 「톱」을 지어 일제히 거행  
하게 되었다. 이상 각학교의 졸업수

할양으로 경륜한것일지나, 내가 이를  
참음을 었었다. 너보담은 내가 강하  
얏다. 내가 칭내지 아니하다. 너난 내  
가 별이나 주리라고 생각할지나, 나  
난 너의 소원대로 너를 랑민을 만  
들어 줄것이니, 어대던지 너 가고싶  
은대로 가거라』

**창경원의 봄빛**

효과 우등생 수효와 및 졸업후 지방별  
은 다음과 같는데, 실업학교는 역시 취  
직 희망이 케일 만코, 고등보통학교  
는 상급학교 지방이 레년과 마찬가지로  
로 절대 다수라 한다. (조선일보)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초목은 움  
트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방속에 가  
쳐있던 사자들은 대지에 흥드는 봄  
빛을 차차 교외로 교외로 거닐기 시  
작합니다. 그리하여 창경원에도 입  
원자가 점점 늘어갈때, 二十三日  
에는 동물원의 학이 알을 낳았으므로  
아프로 一개월만 있으면 귀여운 어  
린 학을 볼수 잇겠다 하며, 야외사  
자 하마등도 대중임으로 꽃필 때쯤  
되면 전부 귀여운 아기들을 나리라  
합니다. 의외로 일기가 처위 금년에

하고, 손을 다리고 그대로 집으로도  
아갓 라깃소. 나무 우해서 이를 바라보고  
있던 마귀난 너의 경륜이 들닌것을  
보고, 실망람답하야, 청이 잔뜩 나서  
이를 악물고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사  
속으로 들어가 버렸  
— (꽃) —

**조선물산장려성(聲)**

『내 살림 내것으로 살자는 큰 목  
표 밑에서 조선 토산 장려를 목적으로  
조직되어, 십여년동안 그 선진과  
실행에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오던  
조선물산장려회에서는 二十七日 오후  
五시 시내 명월관에서 이사회(理事  
會)를 개최하는 동시에, 시내 각 남  
녀 학교 교장을 비롯하여 교육, 법  
조, 언론계등 각방면의 명사 五十여명  
을 초청하고, 조선 의복지 문체에 대  
한 간담회를 동회 회장 이인씨 사  
회로 개최하야, 남녀학교 교복에 조  
신 수목을 사용하자는 문체를 중심  
으로 여러가지 실행점을 토의하고,  
이후는 더욱 값싸고 질긴 조선 물  
산 장려와 선전에 노력할것을 고조  
하였다 한다. (동아일보)

는 늦게야 꽃이 피리라고 생각하였  
더니, 벗나무가 요새 움트기 시작한  
다니, 그다지 늦지도 안갓지요.  
(조선중앙일보)





# 本劇 배뱅이굿

(平安道民俗劇)

金 台 俊

이극본(劇本)은 고노정  
김재철(故 蘆汀 金在喆) 군  
이항삼 채집하려고 한 것이었  
는데, 이번에 평안북도 운산  
(雲山)군 동신면 성지동(東  
新面 聖旨洞) 김흥섭(金興燮)  
형년의 구술에 의지하여, 이  
를 필기하였으나, 흥섭형 자  
신의 말솜과 같이 그는 이  
능수가 아니므로 다음날에 다  
소 수정을 더하여야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평안도의 방  
곡에 전하는 향토극(鄕土劇)  
으로 매우 귀중한 것이라 하  
겠다. 노정영(靈) 앞에 드  
린다.

## 배뱅이 굿

배뱅이..... 딸 두살 먹은 색시.  
배뱅이 어머니..... 약 사십세  
쯤 된 실혜이의.  
거지 청년..... 남루한 옷을 입  
은 스무댓살 되어 보이는  
청년.  
조판서의 셋째 아들 심석이.  
배뱅이의 유모..... 사십세 가까  
운 노파.  
배뱅이의 동무..... 한 마을에서  
는 색시 四五인. 하나,

들, 셋, 모두 나살은 열대  
여섯살씩된 귀여운 색시.  
열두 단골부당과 많은 구경  
군들.

### 제1막 배뱅이 집

배뱅이와 배뱅이 어머니는  
사로 마주 앉았다.  
배뱅이(어머니 일말을 바라  
보면서) '엄마야, 나는 간밤  
고약하다.'  
배뱅이 어머니 『뉘엇의』  
배뱅이 『간밤의 죽을 꿈을 꾸  
었지요』  
배뱅이 어머니 『야 이 박살릴  
년아, 네게 죽을 꿈이란 말  
이 웬말이나』  
배뱅이 『.....』 (머리를  
숙이고 수집어 아무 말도  
못한다)  
(그리자 배뱅이는 연고 없  
이 급작스럽게 꿈과 같  
이 맥없이 죽어버렸다.  
배뱅이 어머니는 배뱅이  
를 물어버렸다. 배뱅이 어  
머니는 호젓말로 무어라  
고 용커리면서 한숨을 쉬  
고 있다.)

배뱅이 어머니(호젓말로) 『웬  
팔자람. 이번의 사흘 권의  
새로 도입한 원님의 조판  
서의 셋째 아들 박사(博士)  
라니, 우리 딸이 무슨 원  
인으로 죽었는지, 들어가서  
볼어 보겠다』  
(그는 새로 도입한 조판  
수를 찾아 아청(衙庭)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다.)

### 제2막 군수 아저

조판서의 아들 「심석이」  
가 그 두형은 다 외방으  
로 나가고, 심석이는 건달  
박사로써 처음 외방을 벌  
어서 배뱅이 사는 골 「원」  
이 되어 도입한지 사흘후  
였다.  
배뱅이 어머니(아청에 끌어앉  
아 아린다) 『년아 이 고  
을 사는 배뱅이 어머니를  
더니, 이번에 열둘이 나는  
외발 배뱅이가 까닭없이 죽  
을 꿈을 꾸고 죽었사옵난데  
들자오니 이번에 박사님의  
내리와서, 원노릇을 하신다  
고 하옵기로, 청주친에 들  
어왔사오니, 우리 딸이 무  
슨 원인으로 죽었는지 바  
르대로 가르쳐 주소서』  
군수 심석이(당상에 높이 앉  
아, 이 아리는 말들 다 들

은 후 푸념을 창하여 가르  
쳐 준다)  
『어허니야!  
아숙(牙屬) 삼반사령(三班使  
令)들아!  
케금 장고를 다 들러매라  
오호니야!  
너의 딸이 죽을 꿈을 꾸  
고 죽었으니,  
너의 집어 나아가서  
열두나 다 단골(巫)을 불  
러들여  
오를 반도 열 두 반  
네티 반도 열 두 반에  
스물 네티만 철워하고  
뭇네미 대다리를 잘라취라』  
배뱅이 어머니 『메, 고맙습니  
다. 그럼, 그대루 집에 가서  
하겠읍니다』 (그는 아청에  
서 철을 하고 물러나온다)

### 제3막 주막

배뱅이 죽은후 배뱅이 유  
모는 배뱅이네 집에 서도 양  
식을 타먹지 못하고, 생활  
이 딱 곤박해서 막걸레를  
크게 한병 빚어가지고 큰  
길가에 집을 짓고 나가 앉  
아서, 한잔에 한요씩 받고  
술장사를 하였다. 어느날  
한 무루럭 총각놈이 지나  
가다가, 들어와서 술을 한  
잔 사먹었다. 막을 열면

클세  
**청구정인**  
(1)

우조(羽調)  
첫가운 한요  
공산의 처막한데, 슬피 우는  
커 두건아. 촉국(蜀國) 흥망의,  
어제 오늘 아니어든. 지금의  
피 나게 울어, 남의 애를 끊  
나니.  
둘가운 한요

이바 초(楚)사람들아, 네 임  
금 어디 가니. 우리 청산의  
귀망이 되단말고. 아마도 무  
관(武關) 만은 후니, 소식 물  
라 하노라.  
셋가운 한요  
삼동에 배웃임고, 암혈(岩穴)  
에 눈비 맞아. 구름 깃별, 뒤  
도 췌적이 없건마는. 치산에  
하지다 하니, 눈물 겨워하노  
라. 조식(舊植)  
부럽고 청거울손, 아마도 서  
초패왕(西楚霸王). 구동천하(溝  
東天下)야, 일어나 못 얻으나.  
천리마 칠대가인들, 누를 주  
고 이거니.  
진화염  
송림에 눈이 오니, 가지마다  
꽃이로다. 한 가지 꺾어내어,  
임 계신대 드리고커. 임께서  
보오신 후에, 녹야진들 어이  
리.



유모의 총각이 서로 마주 앉았고, 총각은 한잔 마시고 빈 잔을 들고 있다.

총각 『여보 또 한잔만 주유』  
유모 『여보시, 돈만 내시다나. 돈뚝 내면 어련히 안 주겠습다』

총각 『애 이년, 개침이루 나 온 보살년 같으니라구, 사랑난 이후에 돈이지, 너는 돈만 아느냐』 (벌과 들어 세서, 유모의 곁에 놓인 술 병을 치켜 깨트리려 하였 다)

유모 (술병을 밀어 마더주면 서) 『님재 잤구싶은대로 자 시엿소케』

총각 (한잔 두잔 식잔……부 어 먹더니 취해 놓는다) 『애 취했군』

유모 (니무 어이없어 잠간 말 없이 있다) 『이년어 팔자는 무슨 팔잔가. 그다지도 기 박해서 배병이 컷을 먹여주고 양식을 구해 먹었더니 배 병이가 죽을 꿈을 꾸고 죽었 서 막걸레 당사나 해먹을 벗 더니, 것도 못해먹겠구나』 (아는 짓을 한다)

『멀리 배병의 집에서는 열 두 무당의 장고 케금 소 리가 들려온다.』  
총각 (술이 깼임박에 귀를

기울려 그 소리를 듣더니) 『여보 오마니, 더게 무슨 소리요』

유모 『하, 여기 배병이라는 게 집이 있었는데, 며칠전에 죽 을 꿈을 꾸구 죽어서 그림네』

총각 『여보, 죽을 꿈을 꾸다 니, 그거 무슨 말씀이요?』  
유모 『하, 여기 배병이 어머 니가 무남독녀 외박을 하 나 두었는데, 갑자기 죽을 꿈을 꾸구 죽어서, 나는 그 배병이 컷을 말겨주구 낭 식말이나 주어 먹구 살다가 먹을 타이 떨어쳐서 막걸 레 당세를 하러 여기 나왔 더니, 님재 앞의 이 벌시 를 오늘 당합네』

총각 (새삼스럽게 회심의 돌 아서) 『여보, 오늘 케가 대 단히 잘못되수웨다. 그럴테 거 무슨 병이 나서 죽었 나요』

유모 『병이 나디 않아 죽을 꿈 을 꾸구 죽었다메. 그대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유모로 있다나 나오고, 키 엄매가 속이 하도 답답해서 쇠을 조관서가 있음더니——그 조 관서가 아들 삼형제가 있 는데, 그 마지막 아들이 심 석이디 심석이레 박사야 그

삼형제에서 우에 두 형데 는 다 외방살이 가고 마지 막으루 심석이는 갈곳이 없 더니, 요새 이 골 군수루 왔습네. 그대 배병이 어머 니가 그 박사레 군수루 왔 다는 말을 듣고 문복(問 卜)을 들어가디 았엇습다. 『소침은』 박사님이 이번에 『원님으로 내리오셨다는 말 슴을 듣고 왔습는데, 잘말 아줍소서. 케 말은 나희 열 두살에 죽을 꿈을 꾸고 죽었사오니, 무슨 니유로 죽 었습는디 알아쳐머다 하고, 문복하여커이다 하고, 들어왔 습네다』 했더니, 박사 말스 의 『오호나야, 너의 말이 죽 을 꿈을 꾸구 죽었구나. 너의 집에 나아가서 열두 나 다나 단골을 불러 들 여 오를반도 열두반, 내릴 반도 열두반에 스를 네반씩 위하고 못네미더다리를 갈 라줘라. 그래서 배병이 어머 니가 나와서 열두 단골을 불러다놓고, 컷을 차려놓아 서 키렇게 요란스럽게 군 답메』

총각 『여보 오마니, 거즘 단 단히 알쎄다. 무슨 연고 없 이 배병이레 거커 죽었나 요』

유모 『그렇거시다나 배병이레 열 돌에 나서 죽기는 죽 었으나, 열 돌에 나두 비 물(幣帛)은 받고 죽었습머 노』

총각 『그런데 그 비물이 뭇 뭇 왔나요』  
유모 『비물이 온게 많디』

총각 『뭇뭇이요. 그럼 잊키고 리채레 뭇이 왔나요』  
유모 『잊키고리채는 명주키고 리채레 왔습더니』

총각 『조매채는 뭇이 왔나요』  
유모 『남방샷도 훗치매레 왔 습더니』

총각 『그 밖에는 또 온것이 없나요』  
유모 『또 있다. 원앙이 같은 것두 오구』 (패물, 노리개) 독구(갈) 같은것두 오구, 침 등 같은것두 왔디』

총각 『다른건 온것 없나요』  
유모 『다리(月子)도 두어향 왔 습데』

총각 『메 여기 좀 가만 이 수——나는 나갈테루 겁니 다』 (그는 술이 반쯤 취한 후라, 비틀비틀 배병의 집 을 향하여 찾아간다)

유모 『……………』 (물끄러미 총각의 나가는 뒤를 바라 보고 았었다)  
—(또 있소)—

계면 첫가운 한요  
잘 새는 날아 들고, 새 달이 돌아 온다. 외나무 다리토, 홀 로 가는 커 선사(禪師)야. 네 절이 언마나 하관대, 원종성 (遠鐘聲)이 들리나니.  
첫가운 한요

벽해(碧海) 갈류(渴流) 후에, 모래 모여 심이 되네. 무청 방초는, 해마다 푸르로되. 어 땡다 우리의 왕손(王孫)은, 귀불귀를 하나니.

첫가운 한요  
청량산(淸涼山) 육륙봉(六六峯)을, 아나니 나와 백구, 백구야 현사하라, 못 믿을손 도화로다. 도화야 떠지 마 라, 어자(漁子) 알가 하노라.  
북진

누운들 잠이 오며, 기다린들 임이 오랴. 이케 누우신들, 어느 잠이 하마 오리. 차라 로 았은 곳에서, 진밤이나 새 오자.

진희(秦淮)에 배를 매고, 주 가로 찾아가니. 격장상녀(隔江商女)는, 망국한을 모르고서. 연동수 월동사(烟籠水月籠沙) 할케, 후정화(後庭花)만 부르 더라.  
고경명(高敬命)

普通學校...◇

朝鮮語讀本卷一

◇指導例

沈宜麟

이 글에는 便宜를 좇아 教科書 朝鮮語讀本에 쓰는 綴字法대로 쓴 것이다.

一、教材 「四、아버지 우리 아버지」

親密한 사랑과 情理를 맛보여서, 自己들의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또 尊敬하고 信賴하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깊이 길러 줄 것이다. 形式的方面으로는 말을 正確히 알려주고, 新字「아, 우, 리」의 글자를 잘 알게 하야 줄 것이다.

어버이로서의 즐거움은 귀여운 아들을 가진 것이 무엇보다도 第一일 것이다. 이오, 이우에 대한 幸福은 업슬 것이다. 날마다 수구려움과 괴로움이 잇더라도, 自己의 아들이 理想과 맞을 때는 모든 걱정이며 疲勞를 잊고 즐거운 生活를 할 수가 잇을 것이다.

아들로서는 自己가 人間에 나온 것도 자라나가는 것도 배워서 알아 가는 것도 其他 날마다 살아가는데 었던 것을 勿論하고 모든 것이 다 어버이의 恩惠 아닌 것이 업슬 것이며 어버이가 업고는 自己가 存在할 理

致가 업슬 것이다. 即 瞬間이라도 잊지 못할 것은 어버이다.

그럼으로 어버이를 尊敬하고 信賴하며, 溫順하고 服從하야 感謝한 생각으로 情성껏 섬겨서 어버이를 잊브게 하는 것이 사람의 지키고 밋을 길이다.

本課中에 「우리 아버지」하는 「우리」의 意味는 어버이에 對한 親密을 더욱 깊게 表現한 말이다. 充分히 살려서 取扱하야 할 것이다.

讀本의 插畫를 보건대, 아버지는 밋에서 일을 마치고 광이를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과 딸 男妹는 마중을 나가서 호는 손을 잡고 흥은 옷을 벗고 기쁨과 웃음의 얼굴로 이야기를 하며 들어오는 모양이다. 실로 親子の 愛와 情이 넘친 것 같다. 이 精神을 잘 살려서 指導하야 할 것이다.

1, 插畫의 內容과 練習할 材料의 材料. 아버지께서는 밋에 가서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광이를 어깨에 메이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을 보고, 반가워서 뛰며 나가 마중하야 모시고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증일토록 일을 하야 대단히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귀여운 아들과 딸이 마중나온 것을 보고,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만 기분 마음으로 웃음을 띄우고 아들과 딸의 손목을 붙잡고 자미있게 이

야기를 하며 같이 들어옵니다.

아들과 딸의 아버지를 반기는 모양, 아버지의 아들과 딸을 사랑하 는 모양, 참으로 무엇이래 말할수 업 시 마땅하게 보입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안녕히 단겨오십닛가. 오늘엔 얼마나 피곤하셔요」하며 위로하야 들 이며,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보고 「오냐, 팬치안다, 너의들은 오늘 공 부 잘하고 어머니 말 잘 들었니? 참 착하다. 어서 들어가자」하고 자미 있게 이야기를 하얏을 것입니다.

2, 新語... 아버지, 우리  
3, 補充語... 농부, 모자, 광이, 짚신  
아들, 딸, 밋, 일, 안녕히 단겨오십 닛가, 피곤하시지요, 손목을 잡고  
4, 新字... 아, 우, 리  
아... 筆順(왼쪽으로 돌려서 동구 랭이를 하고, 내려 굽고, 부쳐서 밖

아편 가운데쪽에 점을 찍는다) 劃數(외곽이다) 部分名稱(이응자 옆 에 아자를 쓴다)  
우... 同方法(이응자 아래 옷자를 쓴다)  
리... 同方法(리응자 옆에 잇자를 쓴다)

三、指導方法大要 (四時間 取扱)  
1, 插畫에 對하야 直觀的 問答.  
問, 이 그림은 무엇이하는 그림이나 잘 보고 對答하야 보아라.  
答 自由로 自己가 본바를 發表시 킨다.

2, 插畫中 部分的 問答과 補充語指

導.  
問,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무엇이 냐. 엇더케하고 잇니, 무엇이 쓰 니...

答, 아버지를시다. 아들이을시다... 3, 插繪에 表現된 親子の 愛와 情을 問答으로 아리킬것.

問, ... (插畫 內容 參照)  
4, 自己들 아버지에 대한 觀念을 問答하야, 親子の 愛와 情을 一層 더 깊게 養成할것.  
問, 너의들 아버지가 계시냐. 무엇이 하시니. 엇더케하야 주시드냐. 엇 더케여기니, 엇더케하야 들일터이 나...

答, ...  
5, 以上과 같은 取扱을 하며 問答 하는 때에, 不正確한 말이며 完全히 못한 發音 같은것을 教育的 言語로 充分히 指導할것.

6, 新語의 읽는 法과 쓰는 法 指導.  
「아버지. 우리 아버지」 分別書法이며 綴字에 對한 觀念을 正確히 알 릴것.

7, 新字의 書法 指導.  
8, 總括的 練習... (말 연습, 읽는 연습 쓰는 연습)



# 새바침법을자연습

보통학교를 마치고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 조친어를 배울 때의 독본에 있는 글자중 전에 보지 못하던 새 바침 글자를 많이 본다. 이것을 특별히 많이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학생들의 편리를 돕기 위하여 이 난을 둔 것이다. 학생뿐 아니라 누구라도 새 바침법을 알고서 하는이는 이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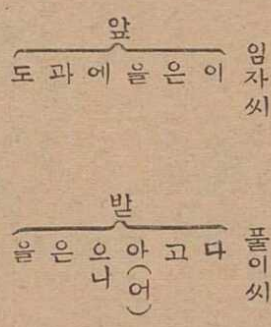
中等 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教育 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 高等普通學校 一學年 一、入學(一一六)

(판호 안에 쓴 것은 몇 페이지의 몇째줄이라 한 뜻이다)  
 같습니다(一)의四) 같은(三)의六), 같았소(四)의三)의 비표.  
 끝난(一)의五) 끝났다(四)의四)에 비표.  
 반(一)의六) 받(二)의一), 받(三)의五), 받(三)의九)의 비표.  
 이것을수(二)의二) 잊어버렸다(五)의十一)의 비표.  
 찾(一)의八) 찾(三)의四)  
 싶(三)의五) 싶(五)의一), (二)의 비표  
 믿(三)의五)  
 앉(四)의九)

앞에서 (五)의四)  
 언(五)의四)  
 빛(六)의三)

우의 말 가운데 「빛, 앞, 빛」 들은 **임자씨**(主語)요, 「같다, 받다, 있다, 찾다, 싶다, 믿다, 앉다, 언다」 들은 **풀이씨**(說明語)다. 임자씨와 풀이씨는 그 토로써 쓰이는 것이 각기 다르다. 말 한 개씩 가지고 지금 예를 보리라.



이와 같이 어떠한 말이든지 다 이렇게 임자씨이면 임자씨 아래 달리는 토를, 풀이씨이면 풀이씨 아래 달리는 토를 달아서 응용하여 보면, 우의 말이 무슨 바침이던가를 알면 알게 된다. 지금은 우의 있는 말을 가지고 각기 비교하여 보리라.

빛	이	은	을	에	과	도
앞	이	은	을	에	과	도
끝	이	은	을	에	과	도
씨						

풀이씨

앞	다	고	아	으니	은	을
찾	다	고	아	으니	은	을
잊	다	고	어	으니	은	을
싶	다	고	어	으니	은	을
높	다	고	아	으니	은	을
얼	다	고	어	으니	은	을
믿	다	고	어	으니	은	을
받	다	고	아	으니	은	을
같	다	고	아	으니	은	을
씨						

이 밖에 「까지, 아까, 깨달았다. 아버지께, 함께, 그에게」와 「입때, 찾을 때, 떠나서」와 「뵙는다」와 「반짜 반짜」같은 말들은 전에 된시옷으로 쓰던 것을 어떻게 고쳐 쓴 것이나, 항상 주의할 것이다.

## 二、人生의 아침(六一九)

햇빛(六)의九) 金빛(六)의三)에 비표.  
 돈(六)의九)  
 같(六)의十) 같습니다(一)의四), 같(三)의六), 같(三)의九)의 비표.  
 맞(八)의六)  
 싶(八)의八) 싶(三)의五), 싶(五)의一)의 비표.  
 믿(九)의一)

우의 말 가운데 「빛, 밖」 들은 **임자씨**요, 「돌다, 같다, 맞다, 싶다」 들은 **풀이씨**다. 이 경우의 있는 말을 가지고 각기 비교하여 보리라.

빛	이	은	을	에	과	도
밖	이	은	을	에	과	도
씨						

풀이씨

싶	다	고	어	으니	은	을
맞	다	고	아	으니	은	을
같	다	고	아	으니	은	을
씨						

## 三、都會로운學生諸君에게(九一三)

밀(二)의七)  
 찾(二)의一〇) 찾(二)의八)에 비표.  
 받(一)의三)의三) 받(一)의六), 받(二)의一), 받(三)의五), 받(三)의九)에 비표.

우의 말 가운데 「밀」은 **임자씨**요 「찾다, 받다」 들은 **풀이씨**다. 이 경우의 있는 말을 가지고 비교하여 보리라.

밀	이	은	을	에	과	도
씨						

풀이씨

받	다	고	아	으니	은	을
찾	다	고	아	으니	은	을
씨						

# 본말선조의 강

培 鉉 崔

조선말본(朝鮮末本)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은 비단 학생에게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새로 나는 최현배씨의 지은 **중등조선말본**은 우리의 중등 교육에 말본을 가르칠 감으로나, 또는 말본을 처음 배우는 이에게 홀도 의원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책의 자세한 해설(解說)을 청하였던바, 다행히 지금부터 실리게 된 것을 감히 사히 생각한다. (편찬인)

## 제1강 조선말본의 갈말(術語)은 순 조선말로 하자

이제 본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말본에 쓴 쓰는말(用語)에 대하여 잠깐 먼저 말하려 합니다. 나는 조선말본을 풀이할 적에 될수 있는대로 순전한 조선말을 썼으며, 더욱 그 갈말(術語)은 순전한 우리말을 쓰기를 힘썼습니다. 갈말이라 한다 하여 결코 도무지 없는 말을 새

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곧 보통으로 쓰이는 말을 모아서 더러는 그 뜻대로, 더러는 권의적(轉意的)으로 새 갈말을 지었음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갈말(術語)로 쓰는 서투르겠지마는, 이는 새로운 사상체계(思想體系) 그것이 아예 서투른 것이기 때문 에, 그 서투른 사상체계를 담은 말조차 서투른 것은 피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잠심하여 그 사상체계를 더듬하고 나면 그 갈말이 결코 서투르지 아니할뿐 아니라, 그때에는 그 갈말이 아니고는 그 사상체계와 낱말의 관념을 나타내기가 어렵게까지 되는 것이니, 이는 우리들이 여러가지의 학문에서 여러번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조선말본의 갈말도 처음에는 서투르 겠지마는, 누구든지 한번 나의 우리 말본의 체계를 깨칠것 같으면, 조금도 어렵는 것이 없을것이라 합니다.

이제 나의 『우리말본』에서 새로 나타난 갈말(術語)을 버려 적으면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혹 보우의 될 가 하여 한역(漢譯)을 붙여 적는다.)

- 월(文, 文章)
- 낱말(單語)
- 대중말(標準語)
- 말본(語法, 文法)
- 소리갈(音聲學)
- 홀소리(中聲, 母音)
- 닿소리(初聲, 子音)
- 홀린소리(濁音, 有聲音)

맑은소리(淸音)

거센소리(激音, 有氣音)

홀소리(單音)

거듭소리(重音, 複音)

섞음거듭소리(混成重子音)

덧거듭닿소리(次成重子音)

소리의 맑음(音의 同化)

홀소리의 고름(母音同化)

외갈(單語論, 品詞論)

외가름(品詞分類論)

외(品詞, 詞, 單語)

이름외(名詞)

대이름외(代名詞)

셈외(數詞)

움추외(動詞)

어떻외(形容詞)

잡음외(指定詞)

어던외(冠形詞)

어찌외(副詞)

느낌외(感動詞)

토외(助詞)

생각외(觀念詞)

결립외, 결침외(關係詞)

임자외(體言)

풀이외(用言)

꾸밈외(修飾詞)

두루이름외(普通名詞, 通稱名詞)

홀도이름외(固有名詞, 特稱名詞)

완전한 이름외(完全名詞)

불완전한 이름외(不完全名詞)

사람대이름외(人代名詞)

몬대이름외(物代名詞)

가리킴(人稱, 稱格, Person)

외갈바꿈, 끝바꿈(語尾活用, 活用)

줄기(語幹)

외갈(語尾)

오름꼴(基本形, 原形)

마침법(終止法)

검목법(資格法)

이음법(接續法)

배품꼴(敘述形)

불음꼴(疑問形)

시강꼴(命令形)

피임꼴(請誘形)

느낌꼴(感動形)

어찌꼴(副詞形)

어던꼴(冠形詞形)

이름꼴(名詞形)

매는꼴(拘束形)

안매는꼴(不拘形)

별립꼴(羅列形)

풀이꼴(說明形)

가림꼴(選擇形)

하림꼴(意圖形)

목적꼴(目的形)

미침꼴(到及形)

그침꼴(中斷形)

되풀이꼴(反覆形)

잇달음꼴(連發形)

견줄꼴(比況形)

고어음꼴(引用形)

더보람꼴(添加形)

더해감꼴(益甚形)

뒤집음꼴(翻復形)

벗어난 끝바꿈(變格活用)

바른 끝바꿈(正格活用)



# 말뭉치와 대담

한글 맞춤법

동음반에 대하여(一)

【말뭉치】 제六항(一) 그

으로 나쁜 바침. 어찌(副詞)인 「뜻(即)」, 「및(及)」 들의 여기와 의지한듯한데,

「반」, 「및」들로 씌도 좋았나? 부록二 부호 제一항 아래에 「곧(即)」으로

썼으니, 무슨 이유로 인함인지오. (高敞高普 鄭寅承)

【대담】 六항의(一)인 「가담없이」라는 조건 밑에서 「소리로 나는 것을 습관에 따라」

「곧(即)」인 어원상(語源上), 역사상(歷史上) 「바침이 있다는」가담이 있기 때

문에 그러한것이고, 「및(及)」인 「미치라」가 줄어지면서(品詞)까지 바꿈이 있기때문의

그리한것입니다. (金允經)

【말뭉치】 제六항 맨 끝 줄

「光輝」의 뜻인지? 「橫出」의 뜻인지? 「만일」 「光輝」

의 뜻이면, 제二八항(一)의 품사

「빛나다」로 하지 아니함인지

【말뭉치】 제一〇항(一) 「말뭉치」란 말이

【대담】 「빛나다」는 「빛나」나 「아간다」의 뜻입니다.

무슨 이유인지오.

(정인승)

【대담】 「빛나다」는 「빛나」나 「아간다」의 뜻입니다.

【말뭉치】 제一〇항(一) 「말(知)」인 「말(知)」, 「말(知)」의 경우와 「말(知)」의

변칙의 예외로 볼는지오. 아주 어원상 떠나서 「아름

칙」 「아름칙」으로 쓸는지오? (정인승)

【대담】 「아」에서 줄어

「關係」가 아닌 종속관계(從屬關係)의 말 곧 「아」의

「과」 만나면 「바침」의 줄어짐을 말함이지오 (보기=을나

니=우나니) 대등관계(對等關係)에

는 줄지도 않거나(보) 기=을나=우나(그리한 경우

까지 줄어진 말이 아닙니다. 그러

한것으로 『말(知)』 『말(知)』

은 이 항의 예외요, 무관합니다. 일체로

소리 두우에서 변격의 생

기 지 아니합니다. 『아』 『아』

로 『아』의 예외도 그대로 쓴 것

【말뭉치】 제一〇항(一) 「말뭉치」란 말이

부기(附記) 하야. 가령 『하

보다』 『하며두다』 『하며오

다』 들 경우에는 메 甲에

의지하여 『야』로 쓸는지오.

【대담】 「하」 밑에 「하」

『였』을 표준으로 함의 분

의 정신이니까, 『야』를 씌

우든지 『하』가 원 표준으로

되, 한문의 토로 『야』를 씌

오면 습관을 인하여 용인함

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보

이신 예대로 씌어 좋으며, 『야』

로 씌도 표준이 아니니, 여

시 용인되는것입니다. (정인승)

【말뭉치】 제五절의 제부

바침. 제一八항 메 甲에 『반

치다(支)』라 하였고, 제二六항

## 부질없는 수작

정규창(丁奎昶)씨는 「정어」

이란 잡지의 「된사(說)」를 주

장하는 글을 썼는데, 별로 취

할만한 뜻이 없다. 구라며 그

것을 비평하고자 하지 않거

니와, 한가지 흥미적 재료로

그 글 가운데 「칠만 들어

보리라.

『가와 차, 마와 차, 빠와 차,

짜와 차를 대조하며, 진자가

후자보다 불편하다 함은 소

아라도 곧 판단을 나릴 것이

며, 좀더 특수한 예를 들면

이러한것들이 있다」라 하고

예를 들었는데,

첫재의 이유로 「빨, 뺑」—나

넘는 「빨」 「뺑」 「뺑」들이 있

는 줄 모르는가? 이러한 글

자들은 다 미리 뭉그러지리

라 염려하여 인쇄할 때 예외

두 제외하여 버릴것인가? 그

리고 「빨」 「뺑」은 절대로 뭉

그러지지 않으리라고 확실하

보증하는가. 또 영어에 가장

많이 쓰는 Community는 내려

그인 회의 뭉 두개, Wum-

nity 라만지 humming 같이 것

은 열 세획씩, 이런것도 다

도안 같다 하여 영어를 쓸

때에 빼어버리고 쓸터이니냐.

그래서 무슨 도안 같거나 눈

이 현란한것이 다만이 「빨」

「뺑」에만 있다고 보이는가? 과연이면 그 눈은 아마 바

른 눈이 아닌지도 모른다.

둘재의 이유로 「고」가 고자

로, 「터」가 「터」로 잘못 보이

는 일이 꽤 많다」라 하였

다. 그는 이것을 병서법 반

대에 불러온 발전이나 한 것

처럼 아나, 수많은 글자중에

모양이 서로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기가 예사다. 다른 나

라 글에도 흔히 있는것이 지

만는, 한글에는 더욱 많다.

어찌 병서법으로 쓰는대에만

한하여 있다 하는가? 르, 드과

口, 뺑이 각기 서로 비슷하

지 않는가. 「라」 줄과 「라」 줄



# 東亞日報

# 朝鮮日報

# 朝鮮中央日報

地番二三洞志堅府城京

## 社會式株書圖城漢

番九七四一(光)話電  
番〇六六七城京替振

洞國安城京

## 館書印央中

番五九五二(光)話電  
番八七一二一城京替振

### 朝鮮學文庫設置

悠久한 歷史와 燦然한 文物을 有한 우리 朝鮮으로서 어찌하여 오늘날 文化的으로 이다지 落後하게 되었는가. 爾來 우리네는 다만 事大에 昏醉하고 退嬰에 自安하는 그 尊華主義에 陷매였으며, 또 挽近에 이르러는 날로 激變하여 가는 混沌한 思想界에 우리로서 거의 歸趣를 定하기 어렵우리만치 너무도 外來思想에 誘導되고 말았으니, 이렇듯 우리는 自己沒却의 精神 살아갈뿐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의 往昔의 文獻이란 餘地없이 湮滅에 돌아가고, 現時의 名著도 永續으로 保存할 길이 없다. 이 어찌 有志人士의 慨嘆을 禁할바이라.

우리는 이에 생각한바 있어, 淺識과 微力을 不顧하고, 朝鮮學 建設 基礎工役의 第一步로 朝鮮學文庫를 設置하고 材料 蒐集부터 着手하기로 한 것이다. 이 巨創한 事業은 다만 우리 같은 幾個 讀書人의 意圖로서만 될 것이 아니라, 또한 滿天下 有志大家의 鼎力을 우르러지 아니할 수 없는지라. 이로써 社會에 對하여 幫助를 求하는 바이다. 이 事業의 完成은 오로지 이 趣意를 贊同하는 여러분에게 있을 뿐이다. 그리고 施惠의 物品은 이 文庫의 紀念物을 삼아 永久 不忘하기로 한다.

### 圖書蒐集의 標準

- 一、무슨 內容이거나 순 한글이나 한글이 섞인 책.
- 二、무슨 말과 글로 썼거나 內容이 朝鮮에 關係된 책.
- 三、무슨 內容이거나 조선 사람이 外國말과 글로 지은 책.
- 四、조선 사람이 쓴 글씨나 그린 그림.
- 五、外國사람이 쓴 조선 글씨나 조선에 關하여 그린 그림.
- 六、무슨 말과 글로 썼거나 一般 語學書類.

### 朝鮮語學會

◎代金을 보내실 때는 京城府花洞 一三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 京城壹〇參六番으로 하시오

### 靑年常識叢書

定價 各、二十錢  
送料 各、二錢

朝鮮歷史、東洋歷史、西洋歷史、朝鮮地理、世界地理、政治篇、經濟篇、法律篇、哲學概論、社會學、人體生理、家產衛生、新體書簡文、朝鮮語文法、物理學、化學、商業、法文은 朝鮮語學會出版部

價定	
一部	五錢
三個月	三十錢
一箇年	五十五錢
代金은 바닷이 先金을 要함.	

昭和九年四月十二日 印刷  
昭和九年四月十四日 發行

編輯兼 李 允 宰  
發行人 李 允 宰

印刷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印刷所 京城府花洞一三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總販賣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